

# “서로 관용하고 대립 뿌리뽑자”

### 이낙연 총리, 개천절 경축사... “민주·포용 이뤄야” “우리겨레 성취...한반도 평화로 세계 평화 이롭게”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서로 관용해야 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과 ‘이화세계’ (세상을 이치로 다스림)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발전·민주·포용·화합·평화 등을 5대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 총리는 먼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더 발전해 우리 후손과 세계 인류를 더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구현해 가야 한다”며 “약자를 더 보호하고 안전망을 더 확충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나와 너를 가르는 벽을 허

물고 서로 관용해야 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아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키워야 이치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남북한의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가

며 세계평화에도 이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겨레의 땅은 크지 않았지만 겨레의 얼은 하늘처럼 높았다. 겨레는 국조(단군)의 정신을 이어가며 쉬지 않고 내달았다”며 “단군의 후예들은 슬한 고난과 질곡을 이겨내며 자랑스럽게 성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의 맘과 눈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강국을 세웠고, 피어린 저항을 마다하지 않으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을 국가가 돕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가고 있고,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며 살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겨레의 위대한 성취”라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의 과제를 실천하기로 단군께 다시 약속드리자”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4당 대표 등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모두가 함께, 세상을 이롭게’란 주제로 열린 단군 4352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길·혁신·소통·정령’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공직자, 창조적 파괴할 줄 알아야”

### 이용섭 시장, 시교육청 직원 대상 ‘공직자의 길’ 특강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일 “공직자들도 혁신을 위해 창조적 파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대회실에서 열린 ‘공직자의 길·혁신·소통·정령’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제는 성실·근면한 ‘순종형’ 인재보다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도전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즉불통(通即不通) 불통즉통(不通則通)’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기와 혈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의미다”며 “공직자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를 갖추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소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직자가 정령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면서 “정령이 공정한 정책을 결

정하고, 교육청 신뢰와 이미지 제고를 결정하므로 늘 혁신·봉사·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혁신과 소통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공론화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 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소산업·인공지능·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문화가 살아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광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에 관한 노력도 소개했다.

/강성수 기자

## 국감 곳곳 ‘조국 공방’에 파행 얼룩

### 한국 문체위 보이콧 ...여, ‘황교안·나경원 공세’ 맞불

제20대 국회가 지난 2일부터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조국 대전’을 벌였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른바 조 장관 파면을 압박하기 위한 ‘조국 국감’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문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를 촉구했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증인문제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제 제출을 문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경력 의혹,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

업 관련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 등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북미 비핵화 협상 의미와 전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인식, 처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환경노동위는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의 화학물질 불법 배출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타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졌다.

/서울=강병운 기자

### 여야 ‘홍익인간 정신 실천’ 현 정국엔 ‘시각차’ 극명

여야는 3일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새기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개천절 경축식 불참과 서울 도심 장외집회 계획이 개천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 멀어지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평화로 광장에서 예고된 분열과 갈등은 연면한 역사의 가르침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군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단체장 오찬

### “수출부진 극복 모멘텀 등 목소리 경청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준 디스플레이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제 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경제인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과 소비·투자 등은 호조세로 돌아섰지만, 수출분야 등은 부진을 극복할 모



멘텀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출부진 외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응현황, 내수급감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장성토지 (급매)

####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 (앞면30m)

- ① 매매가 시세 10억 (1080평)  
↳ 7억 5천
- ② 평수(230평, 매매가 1억6천)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 물건

-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9천5백만
- ②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 ③ 장성필암리(담)925평) → 매매가2억8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 경매교육 [특수전문]

- ① 특수반 모집(매주 개강)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② 매주 토요일  
· 기초무료교육 실시
- ③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타디
- ④ 경매투자 연30% 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 시 연 15% 가능

대신경매 010-4667-9820

### 경매물건 (추천)

#### 부동산 경매

〈아파트, 주택〉	아파트 - 광산구 삼각동 - 건물 59.89㎡ - 감정가 1억3천만 - 최저가 9천만	아파트 - 광산구 운남동 - 건물 49.69㎡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7천8백만	주택 - 동구 학동 - 토지 186㎡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7천만	주택 - 남구 백운동 - 건물 243.77㎡ - 감정가 3억1백만 - 최저가 2억1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64.8㎡ - 감정가 8억9천만 - 최저가 2억6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341.05㎡ - 감정가 8억2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다가구(원룸) - 서구 금호동 - 건물 373.58㎡ - 감정가 6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만	임야 - 광주 광산구 동산동 - 임야 3502㎡ - 감정가 1억5천만 - 최저가 1억만
〈특수 물건〉	잡지실 - 남구 송하동 - 지분5481㎡ - 감정가 18억1천만 - 최저가 12억6천만	토지 - 전남 장성 삼서면 - 농지 2079㎡ - 감정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숙박시설 - 전남 함평 학교면 - 건물 2025㎡ - 감정가 25억3천만 - 최저가 9억월	숙박시설 - 충남 예산읍 읍면면 - 건물 2308.03㎡ - 감정가 24억1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근린시설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 건물 1826㎡ - 감정가 12억9천만 - 최저가 5억2천만	다가구(원룸) - 경기 화성시 병점 - 건물 480.22㎡ - 감정가 10억2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근린주택 - 충남 예산군 봉산면 - 토지 10418㎡ - 감정가 11억5천만 - 최저가 3억9천만	다세대(빌라) - 충남 태안 태안읍 - 건물 970.26㎡ - 감정가 7억6천 - 최저가 6억3천만
〈매매 및 임대〉	용평동 원룸 매매 - 평 15개 - 월수입500만원 - 매매가 7억2천만원	치평동상가16층,80평 - 클러스터형화관 바로앞 - 보양관, 월150만원 - 매매가 1억6천만원	광산구 신정동 (부동산사무실코너) - 즉시임주가능 (관리비 무) - 보3백만원, 월25만	쌍암동 상가 (10층,24평) - 550백만, 월40만원 - 매매가1천만원

◆ 기본권리 분석된 물건만 선별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 그밖의 물건(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010-6670-9800